

GIST아카데미, '아인슈타인의 유산' 3월 조찬포럼 개최

- 지스트 김근영 교수, 일반상대성 이론의 이해와 다양한 현상적인 응용 강조



▲ GIST아카데미가 오룡관에서 3월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아카데미는 3월 28일(월) 오룡관에서 광주·전남 지역의 대표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아인슈타인의 유산: 블랙홀, 중력파, GPS'를 주제로 3월 조찬포럼을 개최했다.

이날 포럼은 지스트 물리·광학과 김근영 교수가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비롯해 블랙홀, 중력파, GPS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큰 관심을 끌었다.

김근영 교수는 일반상대성 이론의 흥미로운 예측들을 소개하며, 그 대표적인 예로 블랙홀과 중력파의 관측을 들었다. 특히 중력파의 관측은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한 결과이며, 이는 블랙홀의 성질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또한 김 교수는 네비게이션의 GPS는 일반상대성 이론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.

한편, GIST아카데미 조찬포럼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, 아카데미 동문 및 지역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 강연을 통해 의식혁신과 기술 이전 및 산학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

GIST아카데미는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(2010년 개원), GIST 기후변화아카데미(2016년 개원) 2개의 과정을 운영 중이며, 각 분야의 경영자들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기업환경, 글로벌 경영전략, 교양감각 등을 함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.